

보도시점 2025.4.1.(화) 17:30 배포 2025.4.1.(화) 14:30

김범석 차관, 수출기업 격려 위해 국가산단 현장방문 및 간담회 주재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안·부평국가산단 입주기업의 현장애로 청취
- 미 관세조치 영향이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 철강 중소기업 중심 업황 점검
-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수단 총동원 및 추후 업종별 대응방안 마련 약속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4.1(화), 美 상호관세 조치 발표(美 현지시간 4.2일)를 앞두고 주안국가산단을 방문하여 자동차 부품, 철강, 일반 기계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수출기업 애로를 청취하였다.

<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

- ▶ 일시/장소: '25.4.1.(화) 15:30~17:10 / 주안국가산단 (주)서울엔지니어링
- ▶ 참석자: (정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
기재부·산업부·중기부 담당 과장
(기업) (주)덕성그린텍, (주)서울엔지니어링, 리팩(주), SNT모티브(주), (주)엠텍오토

김범석 차관은 이날 주안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주)서울엔지니어링을 방문하여 용광로 설비부품, 제철소 압연설비 기계 등 생산라인을 살펴본 후, 주안·부평 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5개 수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범석 차관은 “美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조치에 이어 상호관세도 4.2일 부과될 예정으로,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평가하며, “이에 따라 美 관세정책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분야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관세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기업상담 등을 정부의 단일화된 창구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물류비 상승, 수출 다변화 등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美 관세조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철강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관세 등 수출 관련 정보제공과 애로 상시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 2월부터는 KOTRA 「관세대응 119」를 신설해 관세를 포함한 통상조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지원 중이라고 안내했다. 필수 추경에도 무역 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및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관련 소요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10개 부처(기재부·산업부·중기부·관세청·조달청·국토부·해수부·금융위·외교부·관세청·방사청) 및 수출유관기관(수은, 무보, 코트라 등)으로 이루어진 민관합동조직(export119.go.kr)

김범석 차관은 “관세 피해지원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조만간 자동차 등 산업별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책임자	팀 장	이명진 (02-6000-5785)
		담당자	사무관	김지수 (jsarah13@korea.kr)

